자본에 질식당한 예술혼

문화특집 무용계의 구조적 모순분석과 그 대안

아름다울수록 멀리서 음미하라 했던가. 막연히 아름답게만 느껴지던 춤이 어느날 입시 비리에 연루되면서 던진 충격은 자심했을 것이다. 그래도 춤은 아름다울 것이고 영속할 것이다. 인류사와 더불어 시작된 춤의 생명력에 비기면 이만한 충격은 도리어 사소해 보인다.

사실 대학 입시 비리를 질책하면서 춤의 아름다움을 일시 부정하는 사람들의 심정이 이해되는 한편 그 처방을 너무 멀리서 구하거나 단편적 처방에 그치는 사례는 유감스럽다. 예컨대 예능계를 뒤흔들 만큼 구조적 모순이 만연된 터이므로, 이의 척결에 주력해야 한다는 진단은 명목상 정확하지만 현실적 처방으로는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 또한 대학 입시를 그같은 비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입시 제도부터 개선해야 하겠으나 입시 비리의 예방에서 만족다면 미봉책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올 연초부터 간간이 밝혀졌다시피 예능계 입시 비리는 비단 무용계만의 일은 아니며, 그래서 위의 처방 이외에도 때로는 예능계 전반의 교육이나 예술 유통 구조의 문제점도 거론되곤 하였다. 춤 교육, 춤 공연 및 유통에서 드러나는 병폐들이 무용인들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춤의 사회적 위상을 과대평가한 소치일 따름이다. 춤 관련 입시 비리에서 일반인들도 일정한 심각성을 간파했을 테지만, 일반인들이 이의 해결에 나서기에는 우선 너무 춤 자체에 무지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한계는 결국 춤뿐만 아니라 예술을 삶과 대중으로부터 소외시킨 사회적 요인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춤 입시 비리는 예술 수련 및 유통의 측면에서 폭넓게 분석될 필요도 있다.

우리 중고교에는 춤을 다루는 독립 교과가 없으며 춤은 체육과목에 기생한다. 그러므로 특히 대학의 춤 전공 학과에 지원하려는 학생들은 이른바 춤 과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입시 비리가 싹틀 소지가 여기서도 보인다. 비록 독립 교과가 설치된 미술, 음악 등 예능계 입시에서도 이와 유사한 모순은 보편화되어 있고, 이로 인해 예능계의 기초 교육은 공교육보다 절대적으로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다.

다 아다시피 그만한 사교육비를 부담할 수 있는 가정에서나 예술 지망생을 키울 수 있으므로 예능계 교육은 처음부터 재능보다 재력에 의해 좌우될 소지를 안고 있으며, 이와 같은 모순은 예능계 교육을 거친 이후의 예술가 활동에도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자본의 논리를 얼마 만큼 충족시키느냐에 따라 예술가로서의 입신 여부가 판가름난다는 사실에서 자본이 양심 가운데 가장 올곧을 예술적 양심마저 갉아 먹고 있음이 잘 드러나며, 다시 윤리를 상실한 자본은 자본이 아니라 폭력의 하나임을 알게 된다. 따라서 자본을 휘드르거나 자본주의를 오도하는 모든 이들은 예능계 비리로부터 면책받지 못한다.

이런 모순이 유능한 예술 지망생을 몰아낼 확률은 높고 그것은 마침내 예술의 질적 저하를 낳기마련이다.

그렇다면 이런 모순에 편승해서 춤 예술가로 데뷔해도 그런 사람의 공연을 일반인들이 냉대하는 것이 손쉬우면서도 가장 철저한 대책으로 보일 것다. 그러나 대개의 춤 공연을 아예 외면하는 현상황에서 일반인들의 춤 평가 기능은 잠재워져 있으며, 능력자의 춤 공연과 무능력자의 춤 공연을 관객의 호응도에 따라 저울질해 볼 겨를조차 사실상 없는 셈이다.

근자에 춤 활성화가 자주 언급된다 해도 여전히 유료 관객 수는 미미해 보인다. 그럼에도 춤 공연이 꾸준히 증가 일로에 있다는 것은 관객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공연을 계속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저러한 건전한 부수입을 춤 공연 경비로 충당하고 일반인에게서 외면당하면서도 계속 양질의 작품을 선보이려 고전하는 무용가도 없지 않다. 그렇지만 우리 무용계의 전반적 동향은 친지의 후원에 힘입는 공연이 대다수를 점한다고 관측된다. 혼자만의 독무는 아주 드물고 집단적 훈련과 집단적 출연이 보편적 공연 과정을 이루므로 한 점의 작품을 무대화하자면 수백만원 간혹 그 훨씬 이상의 경비가 소요되는데, 춤을 외면하는 관객에게서 이 만한 재원을 확보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와 같기 때문에 춤 공연은 일정한 재정 능력을 갖춘 계층의 전유물이 되기 쉬운 것이다.

우리 관객이 춤을 외면하는 이유로 추상성, 유미주의, 그리고 이보다는 더욱 낮은 완성도 따위가 들어간다. 우리 주변의 춤 공연에서 흔히 노출되는 이와 같은 취약점은 위에 적시된 사회경제적 사정과 깊은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소수의 프로와 대다수의 아마추어가 구분 없이도 공존할 수 있는 무용계의 공연 질서는 무용가로 하여금 크게 보아 춤과 사회 대중 간의 소외, 그리고 이를 조장한 추상성 따위의 취약점에 개의치 않아도 무방하게 만들었다.

으레 춤은 그런 것이니 외면할수록 콧대는 높아진다는 춤 경시 풍조는 따라서 그러한 취약점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 참고로 일제 치하의 민족예술 말살, 해방 이후의 퇴폐춤 풍조, 무대춤 숭상으로 인한 생활춤 퇴조 등의 요인으로 춤의 사회적 위상은 떨어질대로 떨어져 왔다. 변명처럼 들릴지 모르겠으나 춤에 입문하려는 아들 자식을 뜯어 말리는 풍토는 상상하기 힘든 어려움을 만든다. 양질의 공연을 요구하기 전에 이 점을 먼저 생각해보는 솔직함이 필요하다.

그래도 어차피 예술가는 일반인들보다 먼저 깨달아 헌신하기 마련이다.

전문교육과정 부재, 고액 개인교습 폐해 조성
생활속의 춤문화로 대중 소외 극복해야

김 채 현
〈서원대 교수·무용미학〉

참고 영락실

모더니티

파편화·자율성획득의 현대성

모더니티(Modernity)란 과거의 감수성으로는 파악이 불가능한 전혀 다른 근대 혹은 현대적 경험이 지니는 독특한 성질을 의미한다. 이 현대성의 경험은 크게 두가지로 압축이 가능하다. 하나는 사회 전영역에 걸친 파편화의 경험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의 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자율성의획득이다. 정치, 경제, 예술, 교육등은 그들을 강제로 묶어주던 통합의 기획에서 벗어나 각자의 영역에서 계몽이성이 주장하는 합리성, 효율성의 원칙에 순응해간다. 전사회적인 파편화의 경험은 자본주의의 등장으로 가속화된다. 자본주의의 경험은 가장 뚜렷한 현대에 대한 경험이다. 전혀 다른 생산양식의 출현은 기존의 모든 가치와 덕목을 쓸모 없는 것으로 만들고 말았다.

자본주의의 급속한 확산은 전통적인 공동체의 붕괴를 초래했다. 개인에게 현대성의 생생한 체험은 도시에 대한 경험이다. 파리나 런던과 같은 도시생활의 근거는 혈연 혹은 지연과 같은 전통적인 가치가 아니다. 또 근대적 대도시의 출현은 지금까지도 숙제로 남아있는 많은 문제를 가져왔다. 지금까지는 생각지도 못했던 대규모의 빈곤층의 탄생과 인간의 소외 등은 다름아닌 도시화의 오래된 유물이다. 예술가들의 감수성이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파고들었음은 물론이다. 보들레르가 본 19세기 중엽의 파리는 결코 낭만이 넘치는 생동하는 공간이 아니다. 현대의 예술은 근대적 경험이 가져다준 문제점을 하나하나 밝히기 시작한다. 물론 그런 작업은 근대에 대한 경험을 거친 뒤 어느정도 시간이 필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그러나 현대성의 특징을 논하는 자리에서 빠지면 안되는 요소가 또 하나있다. 근대의 경험은 진보와 발전에 대한 경험이다. 미신과 암울한 종교의 질곡과 절대군주의 지배로부터 사람들을 이끌고 나온 것이 바로 근대의 기획이다. 이 근대의 경험이 다름아닌 '인간' '인간주의'라는 말을 탄생시켰다. 그러나 이런 진보나 발전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었다. 진보와 발전을 가장한 억압과 폭력이 바로 이근대 혹은 현대의 경험속에 숨어 있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이경험이 제공한 功過에 대한 냉철한 검토이다.

이 윤 성 〈대학원 박사과정·영문학〉

문화단신

'북방의 선율…' 출반

'화전'에서는 중국 조선족의 대표적 창작 가곡과 동요를 담은 음반 '북방의 선율 - 아! 장백산'을 이달 중순경에 출반할 예정이다. 이번 음반은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민족정서의 공유를 통해 새로운 통일문화 정립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겨레의 노래사업단에서 기획하였다.

'어데로 가나 그리워 나의 장백산' '장백의 미인송'과 같은 우리나라 자연을 예찬한 노래와 '어머니' '선생님의 들창가 지날때 마다'와 같이 모성애와 스승의 사랑을 담은 노래, '나는 꿈에 울었답니다' '설날이 왔어요' 등의 동요가 음반에 담겨져 있다. 〈문의:742-8454〉

'노래여울' 정기공연

노래동아리 '노래여울'은 오늘 오후5시 30분부터 크라운관에서 '제9회 정기공연'으로 '아 민주정부 사천만의 희망이여'를 선보인다. 이번 정기공연은 사천만 민중의 민주정부수립의 건설염원을 노래하고, 자주적 청년학생과 민중들의 연대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고자 기획되었다.

민가협 '시와 노래…' 공연

'민주화실천 가족운동협의회'(이하 민가협)는 다음달 6일부터 이틀간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제3회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양심수의 문제를 대중의 문제로 인식시키고 양심수가 생겨날수 밖에 없는 사회구조를 밝힘으로써 이들을 빠른 시일내에 석방시키고자 기획되었다. 특히 이번 공연에는 대중으로부터 인기를 얻고있는 민중가수들이 다수 선보이는 한편, 민가협 어머니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처음으로 선보인다.

〈문의:763-2606〉

독자수필

"말세론" 극복한 행복으로 가는 길

따라 삶의 의미를 부여받는다"
"인간은 역사를 창조하고 그에

어떤 사람들은 오늘의 풍토를 들어 '말세'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들은 곧 세상이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며 목소리 높여 구원을 받으라고 말한다. 세상이 수상하다 보니 이런 일들은 곧잘 '잘되는 장사'로 둔갑하기도 하고, 그 말세의 철학을 몸소 보여주려다가 세상에 물의를 빚기도 한다. 주부들이 가출을 하기도 하고, 말세의 세계에서 찬란한 구원을 얻기위해 집단생활을 하거나 살인극이 일어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러한 말세론이야 자그마치 1천년전의 서양에서도 있었던 일이었고, 동양에서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자연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흉흉한 인심과 함께 저자거리에 나돌던 이야기였다. 우리가 잘알고 있는 면죄부만 하더라도 그것을 성서적인 뚜렷한 징후를 해석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약화되고 있는 교황의 권위를 되살리기 위한 정치·경제학적인 이유가 그 기저에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늘 우리사회에서 말세를 예감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 아울러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 앞서 보았듯이 그것은 사회적 변동기에서 비롯되며, 비좁고 불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절망적인 목소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즉 정신적 공황이 극도에 도달했음을 의미하며, 사회적으로 본다면 통치에 대한 불만이기도 하다. 말세에 사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사회의 틀이나 제도를 인정하지 않으며 또 그것을 개혁할 엄두를 내지 않는다. 다만 떠나려 할 뿐이다. 따라서 말세론의 시대에서는 지금보다 나은 사회적·정신적 구조를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말세론에 대한 의미의 해독 여부에 따라 그것은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유용한 지표가 된다. 하지만 말세론의 연원이나 그 역사를 비추어 볼 때 여기서 주저앉을 이유가 하등 없다. 토인비는 역사의 흥망성쇠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불변의 법칙일 수 없다고 말했다. 역사는 단순히 수명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의지와 노력이 계속되면 노쇠한 국가라 할지라도 '회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말세의 징후를 깨고 우리 삶을 보다 한차원 높은 곳으로 올릴 수 있다는 것이 아닐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인간은 그들의 노력으로 역사를 창출하고 변형시키며, 그 안에서 자기의 의미를 상관관계에 따라 부여받는다. 즉 인간은 자신의 세계를 창조할 수 있으며 그 창조의 모양에 따라 삶의 의미를 부여받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일은, 인간도 이 우주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위치해야 할 '자리'를 깨닫고 자기 역할(self role)을 파악하여 그 소임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를 만드는 인간과 역사에 의해 의미가 부여되는 인간은 동일하며 이 사회는 그 어느쪽의 전유물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하는 터전임을 되새겨야 한다. 즉 피차가 함께 소중한 존재로서 상부상조의 길을 걸어가야하고 공존공영을 위한 큰 길을 모색해야 할 계제에 이른 것이다.

어떠한 사람도 법 앞에서는 평등하며 개인의 향상과 발전을 위해서는 최대한의 지원과 기회가 보장되어야 할 뿐 아니라 불로소득으로 졸부가 된 무인배들이 으시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능력이 출중하고 노력을 다하여 명예와 부를 얻었다고 자신이 얻은 그 모든 것이 자신만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도 없어져야 한다. 어느 무엇으로도 인간적 소외로 말미암은 사회적 아노미현상이 야기되지 않도록 권력과 재화의 관리가 실현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도 물론이다.

어느 사회에서나 개인이 구하는 것은 행복이요 우리 모두에게 절실한 것은 평화라고 한다. 그런데 행복의 문은 다섯개나 있어 그 관문을 모두 거쳐야 한다고 했다. 첫째 관문은 밥맛을 아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고 둘째 관문은 단잠을 자는 사람에게 열린다고 했다. 셋째는 일거리가 있는 사람의 것으로 놀고 먹는 이에겐 열리지 않는 문이며, 넷째는 무엇인가 자기 능력으로 남들을 도울 수 있는 업적을 지닌 사람의 것이다. 다섯째는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한편으로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자기의 직분대로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끼니가 맛있고 평화스런 잠이 들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것이다. 더우기 그 위에 남을 도운다는 마음가짐이 있다면 그만큼 기쁜일이 어디 있겠는가. 아마도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사는 이땅은 더이상 말세가 아닐 것이다.

최 영 복
〈본교 경제학 박사과정 졸〉

'죽음의 사막' 탐사 22일

탐험기 서역의 땅 끝 타크라마칸 종단

고선지 장군의 희귀자료 입수 성과 커
'가라부란'이 몰아치는 미지의 사막길 지나

실크로드는 당나라때 중국문화가 꽃피던 시절 외국과 교역의 통로이며 많은 유적이 남아있는 곳이다. 그중 유명한 곳으로 돈황, 투루판, 쿠처, 헤텐, 카스 등지를 들 수 있다. 그 출발지는 서안의 서대문에서 시적하여 감숙성으로 들어가 돈황, 투루판, 엔지, 쿠처와 카스를 거쳐 파밀고원을 넘어 중앙아시아로 빠지는 코스가 텐산남로이고 돈황에서 루란, 미란, 체머, 헤텐, 카스를 경유해 중앙아시아로 나가는 길이 서역남로다. 북쪽으로는 투루판에서 우루무치를 거쳐 텐산산맥을 따라 북행하면 텐산북로로 이어지며 또한 남쪽으로는 서안에서 성도를 거쳐 티베트와 운남성의 서쪽을 거쳐 네팔과 기타 각국으로 진입하는 길이 있다.

우리가 이번에 탐험하게 된 곳은 이 여러 통로중 서역남로의 '타크라마칸' 사막이 다.

우리가 서역남로를 가기위해 도착한 커스는 인구 20만명. 90%가 위구르족이며 서역변방에서는 제일 큰 도시로 산업이 번성한 전형적인 회교도시다. 한국인으로서 처음 서역남로를 탐험한다고 생각하니 두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꼈다.

명장 고선지 장군

이번 탐사의 첫 목적은 고구려인 명장 고선지 장군에 대한 연구와 두번째가 곤륜산에서 발원해 타리머분지로 흘러들어가는 백옥강을 탐사하는 것이며, 세번째로는 서역남로의 유적중에서 니야고적과 미란의 유적을 탐사하는 것이다.

이곳 카스는 바로 옛날 고선지 장군이 1만의 군사를 이끌고 이곳을 경유, 파미르 고원과 '라다크' 카시밀의 '킬키드'까지 정벌한 한국인의 투혼이 서린 곳이다.

우리는 사료들을 탐문하던중 천만다행으로 헤텐의 작은 박물관에서 이금병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고선지 장군에 대한 희귀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역사 연구가인 이씨의 말로는 고선지 장군이 서역에서 크게 공훈을 세웠으나 후에 안록산 반란당시 통관전투에서 부하의 모함으로 죽음을 당했다고 한다.

사막속의 도시 헤텐

특별히 사막용으로 만든 대형 지프에 장비와 식수를 싣고 '카스'를 출발, 헤텐으로 향했다. '카스'에서 헤텐까지는 50 km. 일망무제한 황량한 사막이었다. 차창밖으로 눈덮인 텐산산맥과 파미르고원이 영험하게 보였다. '타크라마칸'이란 위구르어로 '한번 사막으로 들어가면 다시는 살아오지 못한다'는 뜻이라고 한다. 사막의 크기는 33만 km이고 동서의 길이는 8백 km, 남북의 폭은 4백 km로 하늘에는 새가 없고 땅에는 생물이 없는 오직 모래바람이 몰아치는 열사의 지대였다. 사막은 날로 팽창해 당나라 이후 남으로 2백 km나 침식하여 번창했던 옛날 아통과 이순은 완전히 매몰되었고 민풍에서 북으로 1백20 km지점에 있었던 정절국도 지금은 완전히 사막으로 뒤덮이고 말았다.

신강성에서는 지난 1960년대부터 날로 팽창하는 사막을 억제하고 모래바람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생력이 강한 미류나무를 대규모로 심기 시작, 지금은 크게 자라 신강성의 명물이 되었다. 미류나무는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지만 황량한 사막에서 푸른 미류나무숲은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

오후 늦게야 백옥으로 유명한 서역 최대의 도시 헤텐에 도착했다. 헤텐은 한대에 우진국이라 했으며, 당대에 비사도호부를 설치했다 한다. 현재 인구는 12만여명, 11족속중 위구르족이 90%를 차지하고 있었다.

헤텐은 곤륜산에서 발원하는 백옥강과 흑옥강, 강바닥에는 천하에 이름난 양질의 백옥이 풍부하다. 옥중에는 백옥과 청옥이 있고 흑옥강에서는 흑옥이 산출된다.

이곳 주민들은 장마가 끝나는 가을이 되면 물에 들어가 옥을 채취하기 시작한다.

헤텐에 도착하던 날밤. 우리는 즉시 당국에 백옥강과 곤륜산 탐사계획을 제의했다. 그러나 그들은 흑옥강 상류지역에 군사기지가 있어 35 km 이상은 갈 수 없다고 한다. 이튿날 아침 백옥강을 따라 상류지역으로 35 km지점까지 올라갔다. 강폭은 약 1 km 정도. 곤륜산의 만년설이 녹아내리면서 흙탕물이 도도하게 흐르고 강건너 사토위에는 작은 수력발전소가 있었으며 곤륜산은 모래바람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강가에 텐트를 치고 더 전진할 수 없는 아쉬움을 남긴채 백옥강 자갈밭을 오르내리며 기념으로 백옥 몇개를 주웠다.

이튿날 우리는 헤텐에서 25 km지점에 있는 마리커와터고성을 찾았다. 이곳은 옛날 위텐국의 수도다. 기원전 206년에서 서기 907년까지가 고대문화의 전성기였으나 유구한 세월속에 사풍에 폐허가 되고 지금은 성벽만이 옛 영화를 말해주고 있었다.

돌아오는 길에 한 농가에 들려 점심을 먹으면서 장수의 비결을 물으니 그들은 한결같이 곤륜산의 빙하녹은 물을 마셔서 건강하다고 하였다. 헤텐 사람들의 식생활은 주로 채식을 많이 먹는 편인데 그중에서도 '미네랄'성분이 풍부한 '살구'를 많이 먹고 있었다. 마침 이때가 살구의 성숙기여서 어디를 가나 살구가 흔했다. 그들은 살구를 따서 씨를 발려내고 육질부는 건조시켜 우리가 곶감을 말려 먹는 것 처럼 년중 먹고 있었다.

6월 27일 '마리커와터'유적을 탐사하고 나서 저녁무렵에 헤텐을 출발 '위텐'으로 향했다. '위텐'까지는 약 180 km. 사막의 길은 아스팔트로 잘 포장되어 있어 비교적 빨리 '위텐'에 도착해 여장을 풀고 안내원과 다음 일정을 의논했다. 나는 당초의 계획대로 사막속으로 매몰되어가고 있는 이순고적을 탐사하려고 했으나 그 곳은 길도 없는 사막을 가는데만 4일 걸리고 통신준비도 없이 가는 것은 위험할뿐더러 당국에서 외국인에게 공개하는 것을 싫어 한다는 것이다. 나는 일주일전 우루무치에서 서역남로의 통행증을 받는데 11개부처를 거쳐야했던 까다로운 절차를 상기하고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이튿날 아침 서둘러 다음 목적지인 체머로 향했다. '체머'까지는 약 316 km. 위텐을 벗어나니 도로는 비포장길인데 황량한 사막이 전부가 갈대숲으로 무성하다. 갈대밭이 어찌나 광활한지 가도가도 끝이 보이지 않았다. 차를 타고 가면서 갈대밭이 시작하여 끝날때까지 시간을 재어보니 1시간20분이나 계속되는 상상도 못할 갈대지대의 연속이었다. 갈대밭이 끝나면 홍류나무가 있고 홍류나무가 없어지니 낙타풀 지대로 이어지더니, 모래뿐인 광막한 대사막이 펼쳐졌다. 사막의 기온은 40도.

교통의 요충지 루어창

타크라마칸 사막 횡단 6월29일 우리는 위텐과 체머등 서역남로의 열사의 사막을 지나 고생끝에 '루어창'까지 왔다. 루어창은 돈황과 사막의 중심부를 횡단하여 '쿠얼러'로 가는 교통의 요충지다. 더욱이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한나라때의 고도 '미란'이 있다. 우리는 안내원을 시켜 수차 이곳 탐문을 교섭해 보았으나 용이하지 않았다. 안내원의 이야기로는 꼭 가고 싶으면 중국인으로 변장해서 가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곳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타국에 와서 규정을 어기면서 까지 행동하고 싶지 않았다. 아쉽지만 미란 탐사계획을 포기하고 사막 횡단 준비를 서둘렀다. 사막을 횡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다. 식수없이는 도저히 사막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전날 경험으로 보아 수통과 사이다 병까지 동원하여 차물을 가득 담았다. '루어창'에서 '쿠얼러'까지는 4백 48km. 평소 차도 잘 다니지 않는 미지의 사막 길이다.

'루어창'을 벗어나서 얼마가지 않았는데 그 무서운 '가라부란'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성난 모래바람이 온 천지 가득히 날린다. 사풍은 모래를 날려와 길을 메우고 차는 가다가 모래에 빠지면 밀고 끌어당기면서 가는데 운을 하늘에 맞길수 밖에 없었다. 만일 차가 고장이라도 나면 우리는 꼼작없이 사막이 갇히는 것이다.

어느 한 곳이 이르니 벽돌로 잘 포장된 길이 나타났다. 자세히 보니 고색 연화벽돌로 무려 100 km나 깔아 놓았다. 만리장성을 쌓은 그들이 벌돌길 100 km쯤이야 대단한 것이 아니겠지만 이 어려운 환경에서 벽돌로 포장했음을 보니 역시 중국다운 면을 느낄수 있었다.

서안 도착

우리는 사막을 횡단하면서 지도에 표시된 '타리무'강을 찾아보았으나 이미 상류지역에서 타리무분지로 잦아들고 하류에서는 강이 흐르던 자국만 남아 있었다. 그러나 공작강은 여전히 많은 물이 '로프놀'호수로 흘러가고 있었다.

오전 10시30분 '루어창'을 출발 타크라마칸사막 중심부를 종단해 장장 12시간만에 '쿠얼러'에 도착했다.

7월 5일 무사히 서안에 도착. 22일 동안 짧은 일정으로 서역남로를 다 볼수 없었고 역사적 유적도 많았지만 현지사정으로 다 볼 수 없었던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

그러나 고선지 장군의 역사적 현장을 돌아보고 또한 한국 최초로 '타크라마칸' 사막을 종단했다는 데 의의를 갖는다.

박 철 암
〈중문과·교수〉